

예비창업자의 창업효능감과 기업가정신의 관계: 창업교육 및 진로불확실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박재춘 (단국대 학교)*

김주섭 (단국대 학교)**

국 문 요 약

최근 국내 대학에서는 예비창업자인 대학생들의 창업효능감과 기업가정신의 고취를 통해서 창업으로의 진로경로가 강조되고 있다. 이를 위해 예비창업자들의 창업효능감과 기업가정신의 관계를 규명하였으며, 창업교육과 진로불확실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충남 천안에 위치한 4년제 대학의 대학생 236명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창업자들의 높은 창업효능감은 기업가정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둘째, 예비창업자의 창업효능감과 기업가정신의 관계에서 창업교육의 상호작용 효과가 실증되었다. 창업교육을 수강한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창업효능감이 낮은 수준에서 중간 수준이 될 때까지 기업가정신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창업효능감이 높아질수록 창업교육을 수강하지 않은 집단에서 기업가정신이 오히려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예비창업자의 창업효능감과 기업가정신의 관계에서 진로불확실성의 상호작용 효과가 실증되었다. 진로불확실성을 낮게 지각하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창업효능감이 낮은 수준에서 일정 수준이 될 때까지 기업가정신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창업효능감이 높아질수록, 진로불확실성을 높게 지각하는 집단에서 오히려 기업가정신이 더욱 높게 나타났다.

예비창업자들의 기업가정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대학생들의 창업효능감을 제고하여 예비창업자들의 행동통제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예비창업자들의 기업가정신의 고취는 대학생들의 창업효능감을 향상시키는 노력과 동시에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창업교육의 보완이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대학생들의 창업진로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창업진로결정에 대한 안정성을 제공해야 하겠다.

핵심주제어: 창업효능감, 기업가정신, 진로불확실성, 창업교육

1. 서론

최근 들어, 대학생들의 진로결정에 있어서 취업정책과 더불어 창업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즉,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창업자금 지원, 세제 혜택 등 각종 정책을 추진되고 있으며,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LINC+ 고도화사업, 창업사관학교, 특화전문분야의 예비기술창업자 육성 등 예비창업자들의 창업마인드 확산과 실제 창업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창업정책에도 불구하고 대학생들의 창업의식 확산이나 성공적인 창업은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학계에서는 창업관련 변인들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으며, 창업자의 특성, 전략적 특성, 창업동기, 환경적 특성, 창업전략과 관련된 실증연구가 진행되어 왔다(한유진, 2016; 한성수·양동우, 2017; 이용희 외, 2015).

이처럼 창업연구에서 창업을 활성화하는 영향요인으로 전략,

제도 및 상황맥락적 변인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예비창업자들의 기업가정신이나 창업의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대학생들의 내적동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예비창업자인 청년들의 창업은 실제 창업을 준비하는 창업자와는 창업에 접근하는 마인드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대학생들의 진로결정에서 창업이 하나의 대안으로 적극적으로 제시되지 못한 이유로는 현실에서 대학생들의 진로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정신을 강화하기 위한 효능감, 복원력 등 인지적 역량 요인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먼저, 예비창업자들이 창업자로 진로나 경력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인지적 요인(예: 창업효능감)의 개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Darmanto & Yuliari, 2018).

인지적 요인(cognitive factors)은 새로운 기회를 발굴하게 하고, 인식하게 하여 새로운 기회에 도전하게 하는 기업가정신의 핵심요소이다(Shane & Venkataraman, 2000). 예를 들어, 다수의 선행연구(Boyd & Vozikis, 1994; Jiang et al., 2017; Zhao

* 주저자, 단국대학교 상경대학 경영학부, innosapark@dankook.ac.kr

** 교신저자, 단국대학교 교양교육대학, jskim1088@dankook.ac.kr

· 투고일: 2019-03-21 · 수정일: 2019-05-10 · 수정일: 2019-06-20 · 게재확정일: 2019-06-29

et al., 2005)들은 창업자를 꿈꾸는 예비창업자들의 창업효능감이 창업행동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연구들은 예비창업자들의 사회인지적 또는 심리인지적 변인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소홀한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Chen et al.(1998)은 창업효능감이 대학생들의 진로를 창업으로 선택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역량을 준비하여 실제 창업으로 연계하는 핵심변인이라 하였다. 이처럼 창업연구들은 창업자 개인의 특질이나 성격에 관심을 두면서(Krueger et al., 2000), 심리인지적 특성변인으로 창업효능감에 많은 관심을 보여 왔다(Chen et al., 1998; Culbertson et al., 2010). 이에 본 연구에서는 창업효능감과 기업가정신의 인과관계를 검증함으로써 창업자들의 심리인지적 특성인 창업효능감의 중요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예비창업자의 창업효능감과 기업가정신의 관계에 영향을 주는 창업교육의 상호작용 효과를 규명하고자 한다. 창업자의 개인적 특성은 창업교육을 통해서 조절이 가능하다는 주장(Ertuna & Gural, 2011; 김성환 외, 2015; 최종열·정해주, 2008)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선행연구들은 창업에서 가장 중요한 창업자의 심리인지적 특질과 창업교육과의 연계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다(Bechard & Gregoire, 2005; 최종열·정해주, 2008). 몇몇 연구들이 창업자들의 인지적 특질과 창업교육의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였다. 예를 들어, Boyd & Vosikis(1994)와 Zhao et al.(2005)은 예비창업자들의 창업효능감이 정보 및 지식 등 창업관련 지식이나 창업실무를 학습하기 위해 다양한 창업교육을 통해 더욱 기업가정신을 자극한다고 하였다. 또한 김성환 외(2015)은 예비창업자들의 자기유능감(self-esteem)이 높고, 창업교육을 수강한 대학생 집단의 창업의도가 가장 높다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예비창업자들의 창업효능감과 기업가정신의 관계에 영향을 주는 창업교육의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창업효능감과 기업가정신의 관계를 조절하는 진로불확실성의 효과를 규명하고자 한다. 대학생들이 지각하는 진로불확실성은 학생들의 경력계획이나 경력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Kelly & Lee, 2002; Lopez & Ann-Yi, 2006; 박재준·김성환, 2017). 예를 들어, 불확실한 환경에서 학생들의 위험감수 성향은 낮아지게 되며, 학생들은 도전적인 창업보다는 안정적인 직업으로 진로를 결정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된다(박재준·김성환, 2017). 특히, 불확실성에 대해서 DeNoble et al.(1999)은 창업 초기과정에서 불확실성의 문제가 창업자의 장애요인으로 작용된다고 하였다. 또한 Wilson et al.(2007)은 예비창업자들이 성공적인 창업 준비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불확실성 문제는 창업자들의 창업효능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즉, 창업효능감은 자신의 진로에 대한 불확실성의 수준에 따라 기업가정신에 주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2.1 창업효능감

창업효능감은 기본적으로 자기효능감에서 확장된 개념(Bandura, 1997)이다.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은 개인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이나 역량에 대한 믿음이다(Bandura, 1997). 중요한 점은 사람들은 객관적인 자신의 능력보다는 자기효능감과 같은 인지적 능력에 의해 더욱 동기부여 되고, 더 나아가 사람들의 정서적 상태나 행동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이다(Markham et al., 2002; Wilson et al., 2007). 또한 몇몇 연구들은(Gartner, 1988; Kasouf et al., 2015) 창업자의 성격이나 특질이 창업자의 성공을 체계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창업효능감 등 인지적 능력의 개발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하였다. 특히, Boyd & Vozikis(1994)는 Ajzen(1991)의 계획행동이론을 적용하여 인지된 행동 통제력이 창업의지에 영향을 준다고 하면서, 행동통제력을 대체될 수 있는 개념으로 창업효능감을 주장하였다(박재준·최민정, 2016).

창업효능감(entrepreneurial self-efficacy: ESE)은 “창업과정에서 요구되는 창업자들의 다양한 역할과 주어진 업무를 성공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개인의 믿음이나 확신”을 의미한다(Chen et al., 1998). 또한 Hisrich et al.(2013)은 창업효능감을 “창업자들이 실제 창업과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확신”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창업효능감은 창업 준비과정에서 학습과 경험으로 개발되며(Barbosa et al., 2007), 창업효능감은 예비창업자들의 진로 및 창업에 대한 목표나 결정 및 몰입 등에 강한 영향을 주게 된다(Zhao et al., 2005). 따라서 성공적인 창업에 필요한 대학생 자신의 역량에 대한 믿음은 더욱 도전적인 사고와 위험추구 행동을 하게 되어, 실제 창업에 더욱 몰입하게 된다.

Sedlan-Konig(2016)은 창업효능감이 예비창업자들의 창업활동이나 목표수준의 선택, 창업성과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Zhao et al., 2005), 실제 창업에 대한 기회 인식이나 위험추구 행동을 자극한다(Krueger & Dickson, 1994)고 하였다. 특히, 선행연구들은 창업효능감이 예비창업자들의 창업의도를 결정하는 핵심 영향요인이라고 주장하였다(Wang et al., 2002; Barbosa et al., 2007). 또한 Mcgee et al.(2009)은 실제 창업한 초기의 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초기의 창업자들은 높은 수준의 창업효능감을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

2.2 기업가정신

기업 및 사회의 변화와 혁신을 지향하거나 창업 및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에 있어서 기업가정신은 매우 중요한 사회적 또는 경제적 트렌드를 형성하고 있다(Shane & Venkataraman, 2000).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도전정신”으로 새로운 혁신을 지속적으로 이끌어내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행동이다(정승화, 2008).

기업가정신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시각에서 다양한 견해를 보이고 있다. Schumpeter(1934)는 기업가를 혁신가와 동일시하여 조직의 혁신을 이끌어내는 동기유발자로서 기업가정신을 강조하였다. 또한 Stevenson(1983)은 기업가정신을 자신이 지니고 있는 자원을 넘어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Drucker(1985)는 새로운 미래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기존의 활동을 변화시키는 혁신활동을 기업가정신이라 하였다(박재춘·김성환, 2017). 특히, Timmons(1994)는 새로운 기회에 초점을 둔 사람들의 사고·추론·행동방법을 기업가정신이라 하였다. 다양한 정의에도 불구하고, 기업가정신의 핵심요인으로는 많은 연구자들은 위험감수성, 혁신성, 책임감, 자율성 및 진취성 등을 주장하고 있다(Miller, 1983; 남정민 외, 2014).

선행연구들은 기업가정신의 영향변인으로 크게 환경특성, 조직특성, 개인특성을 주장하고 있다. 기업가정신의 영향요인 중 환경특성과 조직특성은 외부요인으로 새로운 일을 도전하는 개인의 통제가 어려운 반면, 개인의 특성이나 인지적 능력은 창업교육을 통해 조절 또는 통제가 가능한 변인이다(최종열·정해주, 2008).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업가정신에 영향을 주는 개인의 심리적 특성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Polyhart & Moliterno(2011)는 개인의 심리적 특성을 능력 등 인지적 특성과 성격, 동기부여 등 비인지적 특성으로 구분하였다. 실증연구에서 Gartner(1985)는 개인특성인 성취욕구, 통제위치, 위험선호도가 기업가정신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으며, Hornsby et al.(1993)은 모험성향, 자율성, 성취요구, 목표지향성 및 통제위치 등이 기업가정신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특히, Rauch & Frese(2007)는 메타분석에서 자율성, 자기효능감, 성취욕구, 위험감수성, 진취성 등 8가지의 심리적 특성이 기업가정신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III. 연구가설 설정

3.1 창업효능감과 기업가정신

예비창업자들이 창업을 준비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창업자의 내재적 동기와 심리가 전제되어야 한다(유봉호, 2013). 즉, 기업가정신의 선행연구들은 창업자들의 자율성, 내재적 동기부여, 긍정심리자본, 긍정적 가치 및 긍정적 마음상태 등을 기업가정신의 영향요인으로 주장하였다(Zbierowski, 2015). 예를 들어, Rutherford & Holt(2007)는 개인수준모델에서 프로세스(process), 맥락(context) 및 개인특성(individual characteristics)이 기업가정신에 영향을 준다고 제시하면서, 긍

정적 또는 부정적 정서, 효능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Birley & Westhead(2004)는 기업가정신의 가장 핵심적인 영향요인이 창업자의 자율성이라고 하였으며, Palmer(1971)는 창업자의 내재적 동기부여가 기업가정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특히, Zbierowski(2015)는 자기효능감을 포함한 긍정심리자본이 기업가정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으며, Chen et al.(1998)은 선행연구들이 창업자의 조건으로 자기효능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창업성공에 대한 창업자 자신의 역량에 믿음은 대학생들의 위험추구 정신을 자극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려는 기업가정신의 핵심변인으로 역할을 하게 된다. 이에 국내외 연구들은 창업효능감과 기업가정신의 긍정적인 관계를 실증해 왔다. 먼저, Rutherford & Holt(2007)는 긍정적 정서와 자기효능감이 기업가정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또한 임진혁·이장희(2017)는 리더의 자기효능감이 기업가정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Gartner(1985) 역시 통제위치, 성취욕구, 위험선호도, 직무만족 등 개인적 특성이 기업가정신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특히, Hornsby et al.(1993)은 자율성, 모험지향성, 성취요구, 목표지향성 및 통제 위치를 기업가정신에 영향을 주는 창업자의 개인특성이라 하였다(김성환 외, 2015). 또한 많은 연구들이 기업가정신의 공통적인 특성으로 혁신을 강조하였고(Covin & Miles, 1999), Wanberg & Banas(2000)는 개인의 성격특성이 기업가정신의 혁신특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Ziyae et al.(2015) 역시 창업효능감과 유사한 복원력(resilience)이 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특히, Rauch & Frese(2007)는 메타분석에서 자율성, 자기효능감, 성취욕구, 위험감수성, 진취성 등 심리적 특성이 기업가정신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계획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Ajzen, 1991)에 따르면, 예비창업자들의 창업행동은 개인의 창업에 대한 태도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였다. 특히, 실제 창업으로의 실행가능성에 대한 지각된 행동통제력으로 창업효능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즉, 창업효능감이 높은 예비창업자들은 도전적인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힘든 창업과정에서도 인내력을 발휘하여 해당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이다(Wood & Bandura, 1989).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계획행동이론과 실증연구(Rauch & Frese, 2007)에 근거하여 예비창업자들의 높은 창업효능감이 기업가정신에 주는 긍정적인 영향을 규명하고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예비창업자의 창업효능감은 기업가정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3.2 창업교육¹⁾의 조절효과

창업교육(entrepreneurial education)은 대학생들의 창업동기를

1) 창업교육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성환 외(2015)의 연구 참고.

자극하고, 성공적인 창업에 영향을 주는 창업관련 태도, 기능, 지식 등을 전달해 주는 교육(김성환 외, 2015)으로 성취동기를 자극하는 환경을 조성하여 대학생들의 창업가적 행동(entrepreneurial behavior)을 조성(정연우·반성식, 2008)한다. 즉, 창업교육은 대학생들의 인지적 능력을 강화하는 대리학습(vicarious experience)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가정신의 향상에 도움을 주게 된다(Boyd & Vosikis, 1994; Zhao et al., 2005).

또한 Timmons(1994)는 대학생들에게 필요한 역량들은 창업교육을 통해서 육성될 수 있으며, 창업교육은 창업의 가능성을 제고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예비창업자들의 부족한 인지적 능력(예: 창업효능감, 자율성, 복원력)은 효과적인 창업교육을 통해 보완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창업교육은 창업에서 중요한 창업자의 사회 또는 심리 인지적 특질과의 연계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다(Bechard & Gregoire, 2005; 최종열·정해주, 2008). 즉, 개인적 특성(예: 창업효능감, 복원력)은 창업교육을 통해서 보완이 가능하다는 주장(Ertuna & Gural, 2011; 최종열·정해주, 2008)에도 불구하고, 창업연구는 주로 창업교육의 직접효과에 초점을 두어 왔다(김성환 외, 2015). 국내외 실증연구에서 Crant(1996)는 창업자들의 창업의지와 교육수준이 유의한 관계가 있으며, 예비창업자들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창업의지도 높다고 하였다.

특히, 조준희·김찬중(2015)은 대학생들의 성취요구와 창업의지의 관계는 창업교육에 의해 조절된다고 실증하였다. 즉, 창업교육의 만족도가 높은 집단이 창업의지가 더 높다고 하였다. 그러나 기업가정신 등 창업관련 행동에 주는 창업교육의 상호작용 효과는 일관된 결과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Solesvik et al.(2014)은 문화적 요인과 창업의지의 관계에서 창업교육의 상호작용 효과를 주장하였으나, 유의미한 결과가 규명되지 못했다. 또한 Fayolle et al.(2006)은 창업의도에 대한 창업교육의 긍정적인 효과는 예비창업자들의 특질이나 인지적 능력의 차이로 오히려 창업의도를 감소시키는 역효과를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선행연구들은 효과적인 창업교육이 예비창업자들의 창업역량을 개발하여 기업가정신을 제고한다고 하였다(Sedlan-Konig, 2016). 따라서 예비창업자들의 창업효능감은 창업관련 지식이나 창업실무 등 다양한 창업교육(Boyd & Vosikis, 1994; Zhao et al., 2005)을 통해 대학생들의 기업가정신을 더욱 자극하게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창업효능감과 기업가정신의 관계에 미치는 환경적 요인으로 창업교육의 상호작용 효과를 규명하고자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 예비창업자들의 창업효능감과 기업가정신의 긍정적인 관계는 창업교육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

3.3 진로불확실성²⁾의 조절효과

진로에 대한 불확실성은 대학생들의 삶에 중단기적으로 영향을 주게 된다(De Raaf et al., 2009). 즉 진로불확실성(career uncertainty)은 대학생 개인의 경력개발에 잘못된 영향을 주거나 심리적·육체적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Daniels et al., 2011). 진로불확실성은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한 불확실성을 지각하게 만드는 모든 요인으로(Tien et al., 2005), 학생들이 장래 진로를 결정함에 있어서 예측하기 어렵거나 통제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한다(박재준·김성환, 2017). 문제는 진로불확실성이 학생들의 경력계획이나 경력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Kelly & Lee, 2002; Lopez & Ann-Yi, 2006). 예를 들어, 불확실한 환경에서 학생들의 위험감수성향은 낮아지게 되며, 도전적인 창업보다는 안정적인 직업으로 진로를 결정하는 경향이 높아지게 된다(박재준·김성환, 2017).

최근 진로연구에서는 진로선택 과정이나 진로지향행동(career-oriented behaviors)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기효능감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Betz & Hackett, 1981; Eccles, 1994; Hackett & Betz, 1981; Wilson et al., 2007). 예를 들어, Bandura et al.(2001)은 학생들의 진로목표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자기효능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Markham et al.(2002)은 자기효능감이 학생들의 진로선택, 직업적 흥미, 힘든 업무에 대한 인내력 및 개인 효과성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이에 Wilson et al.(2007)은 자기효능감이 성공적인 창업을 준비하는 창업가들에게 필요한 핵심역량이라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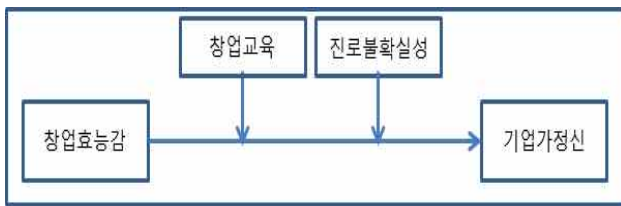
또한 최근 연구에서는 성공적인 창업과정에서 창업효능감과 환경맥락적 변인(예: 불확실성)의 영향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고 있다. 예를 들어, 몇몇 연구(Jackson & Dutton, 1988; Brockner & James, 2008)들은 지각된 통제(예: 창업효능감)와 창업의도의 관계에서 창업자의 성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기회 또는 위협요인의 판단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실증연구에서도 Kuratko et al.(1990)은 기업가정신에 영향을 주는 외부 환경요인으로 환경의 불확실성과 역동성을 주장하였다. 또한 DeNoble et al.(1999)은 창업자의 역할이 불분명하다고 주장하면서 창업 초기과정에서 불확실성의 문제가 창업자의 장애요인으로 작용된다고 하였다. 이에 Wilson et al.(2007)은 성공적인 창업 준비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불확실성 문제는 창업자들의 창업효능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즉, 예비창업자들의 창업효능감은 자신의 진로에 대한 불확실성의 수준에 따라 대학생들의 창업행동에 주는 영향이 다르다는 것이다.

특히, Davidsson(1995)은 경제·심리적 모델에서 창업의지에 영향을 주는 핵심변인으로 창업이라는 진로가 안정적인 대안이라고 지각하는 개인적인 확신이라고 하였다. 안태욱·박재환(2018)은 대학생들의 기업가정신과 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2) 진로불확실성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박재준·김성환(2017)의 연구 참고.

주는 긍정적인 영향을 규명하였지만, 창업이 안정적인 진로의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대학생들이 느끼는 진로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하였다. 즉, 대학생들의 창업효능감이 기업가정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더라도, 창업이 직업적 대안으로 확신이 없을 경우에는 기업가정신에 대한 창업효능감의 영향력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이에 예비창업자들의 진로불확실성의 조절효과를 규명하고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 창업효능감과 기업가정신의 긍정적인 관계는 진로 불확실성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



<그림 1> 연구모형도

IV. 실증결과분석

4.1 표본의 설정

본 연구에서는 예비창업자들의 창업효능감, 창업교육, 진로 불확실성 및 기업가정신 등의 관계에 대한 연구모형을 설정하여, 변인들의 인과관계와 창업교육과 진로불확실성의 조절효과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으로는 충남 천안에 소재한 4년제 대학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지는 수업을 담당하는 교수 및 강사들에게 본 연구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해당 교수님들의 수업시간을 통해서 직접 설문지를 배포하고 학생들이 설문지를 작성한 후 강의실에서 직접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총 3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258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다. 회수된 설문지 중 불성실한 응답이나 누락 데이터가 있는 22부를 제외한 총 236명의 설문지를 활용하였다.

4.2 기초통계량

설문에 참여한 학생 중 남학생은 102명(43.2%), 여학생은 134명(56.8%)이었다. 학년은 1학년이 24명(10.2%), 2학년 57명(24.2%), 3학년 93명(39.4%), 4학년이 62명(26.3%)이었다. 학생들의 전공은 인문사회계열이 98명(41.5%), 자연공학계열이 84명(35.6%) 및 기타가 54명(22.9%)으로 나타났다. 특히, 창업관련 수업을 수강한 학생은 71명(30.1%)으로 나타났다.

4.3 변수측정

본 연구의 측정도구로 창업효능감은 Wilson et al.(2007)의 창업효능감 척도를 사용한 김미숙·김영국(2012)의 측정도구 5개 설문항목을 Likert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주요 설문항목의 예로는 ‘창업과정의 어려운 문제를 잘 극복할 자신감 정도’, ‘창업과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도’ 등이다. 진로불확실성의 측정도구는 한국적 특성을 반영한 박희락(2009)의 진로스트레스 척도에서 진로불확실성에 해당되는 설문문항 5개를 수정 및 보완하여 Likert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설문항목 예로는 ‘자신의 진로를 확실히 정하지 못해 발생하는 불안 정도’, ‘적성에 맞는 진로 미 인식 정도’ 등이다. 마지막으로 기업가정신의 측정도구는 Miller(1983)와 Zahra(1991)가 제시한 혁신성, 위험추구, 진취성의 3가지 차원을 사용한 윤남수(2012)의 측정도구(9개 설문 문항)를 Likert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설문항목 예로는 ‘힘든 일을 극복할 수 있는 진취성 정도’,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 정도’ 등이다. 특히, 금번 연구는 기업가정신에 영향을 주는 변인에 대한 연구로 하나의 통합된 변수로 기업가정신을 측정하였다.

4.4 신뢰도와 타당성분석

4.4.1 신뢰도분석

측정변인의 신뢰도는 내적 일치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였으며, Cronbach' a값을 사용하였다. 신뢰도분석 결과[표 1], 대학생들의 창업효능감, 진로불확실성 및 기업가정신의 신뢰도계수는 각각 .804, .937, .840으로 사회학에서 요구되는 신뢰도 기준을 충족하였다.

4.4.2 타당성분석

본 연구의 타당성 검증은 탐색적 요인분석으로 검증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은 배리맥스 방식으로 검증하였다. 요인 수의 결정기준은 고유치(eigen value)가 1 이상으로 하였고, 요인 적재치 0.4 이상일 경우에만 분석하였다. 1차 요인분석에서 기업가정신의 1개 항목(항목 3)이 요인적재치가 0.4이하로 제거되었다. 2차 요인분석 결과<표 1>, 요인의 전체 설명력이 59.807%를 보이며, KMO값이 .842이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통계값이 2297.641(df=153, p=.000)으로 적합하였다.

<표 1>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결과

구분	요인 적재치	요인			신뢰도 계수
		1	2	3	
창업 효능감	효능1	.669	-.073	.284	.804
	효능2	.682	-.129	.306	
	효능3	.451	.034	.005	
	효능4	.680	-.002	.323	
	효능5	.415	.103	.114	
진로 불확실성	진로1	.787	.885	-.061	.937
	진로2	.848	.915	-.098	
	진로3	.827	.903	-.109	
	진로4	.841	.912	-.079	

구분	요인 적재치	요인			신뢰도 계수
		1	2	3	
진로5	.691	.818	-.138	.045	.840
정신1	.472	-.087	.678	.075	
정신2	.417	-.116	.627	.102	
정신3	.482	.013	.602	.345	
정신4	.553	-.053	.737	.088	
정신5	.470	-.018	.661	.180	
정신6	.524	-.042	.713	.118	
정신7	.484	-.147	.646	.213	
정신8	.474	-.125	.659	.155	
아이겐 값		4.036	3.896	2.835	
분산(%)		22.415	21.643	15.749	
누적분산(%)		22.415	44.058	59.807	

4.5 단일응답자 편차 분석

본 연구 데이터는 동일시점에 동일한 측정대상으로부터 자기보고방법으로 측정되어, 단일응답자편차(single respondent bias)의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다. 문제해결을 위해 Podsakoff & Organ(1986)의 통계적 사후 해결방법인 Harman의 단일요인 검증을 하였다.

단일요인검증 결과, 총 4개 요인으로 분석되었고, 설명력이 가장 큰 요인은 전체 변량의 21.317%정도만 설명되었을 뿐 지배적인 어떤 요인도 존재하지 않았다. 또한 Bartlett 검증(유의수준 $p < .000$)으로 변수들 간의 관계가 단위행렬이 아니라는 것이 실증되었다. 또한 KMO측정치(0.840)도 최저기준치인 0.5를 상회하여 표본이 적합함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동일방법 편차가 심각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4.6 상관관계 분석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표 2], 예비창업자들의 기업가정신은 창업효능감과 긍정적인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러나 창업효능감은 대학생들의 진로불확실성과는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표 2> 상관관계 분석결과

구분	1	2	3	4
창업효능감	1			
진로불확실	-.051	1		
창업교육	.030	-.086	1	
기업가정신	.481*	-.210*	.020	1
평균	3.2966	2.9703	.3008	3.3357
편차	.6545	1.0674	.4596	.5850

* 0.01 수준(양쪽)

4.7 가설검증

창업효능감과 기업가정신과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표 3>, 대학생들의 높은 창업효능감은 기업가정신에 유의미한 정(+)

의 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가설 1은 지지되었다.

창업교육과 진로불확실성의 조절효과 검증은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으로 규명하였다(Cohen & Cohen, 1983). 먼저, 1단계에서는 독립변수(창업효능감), 2단계에서 조절변수(창업교육, 진로불확실성), 그리고 3단계에서는 상호작용항을 추가로 투입하였으며, 2단계와 3단계에서 R2 변화량과 상호작용항의 유의성을 통해 조절효과 여부를 판단하였다. 또한 조절변수의 다중공정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값에서 각각의 평균값을 뺀 값을 곱하였다(Aiken & West, 1991).

먼저,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으로 창업교육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표 3 모형1~모형3>, 모형2와 모형3에서 R2의 변화량(0.021, $p < .01$)이 유의미한 설명력을 보여 예비창업자들의 창업교육이 창업효능감과 상호작용 효과를 보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설 2 역시 지지되었다.

<표 3> 창업교육의 조절효과 검증결과

	모형1	모형2	모형3
(상수)	1.853	1.854	1.818
창업효능감(A)	.444(.485)***	.444(.485)***	.456(.497)***
창업교육(B)		-.006	-.002(-.002)
A * B			-.084(-.145)*
R2	.235***	.235***	.256***
ΔR2		.000	.021*

* $p < .01$. ** $p < .05$, ()는 표준화계수임.

마지막으로 진로불확실성의 조절효과 검증결과<표 4의 모형 1~모형3>, 모형 2와 모형 3에서 R2의 변화량(0.012, $p < .01$)이 유의미한 설명력을 보이고 있어서 대학생들의 진로불확실성이 창업효능감과 상호작용효과를 보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설 3 역시 지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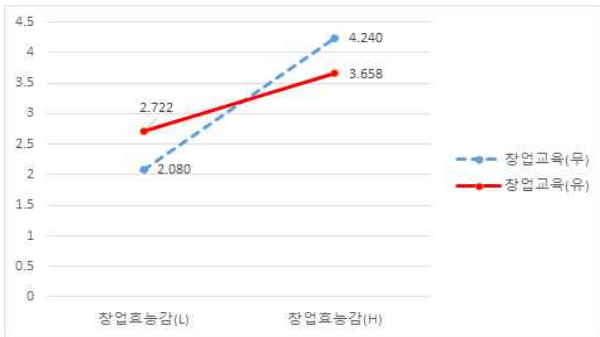
<표 4> 진로불확실성의 조절효과 검증결과

	모형1	모형2	모형3
(상수)	1.853	2.190	2.212
창업효능감(A)	.444(.485)***	.435(.475)***	.438(.479)***
진로불확실성(B)		-.104**	-.114(-.203)***
A * B			.058(.112)*
R2	.235***	.269***	.281***
ΔR2		.034**	.012*

* $p < .01$. ** $p < .05$, ()는 표준화계수임.

Aiken & West(1991)은 상호작용 항의 효과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상호작용 효과를 도식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림 2>에서 보듯이, 기업가정신에 대한 창업교육의 긍정적인 상호작용 효과는 예비창업자들의 창업효능감이 낮은 수준에서 중간 정도의 수준이 될 때까지 유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대학생들의 창업효능감이 증가할수록, 오히려 창업교육을 수강하지 않은 집단이 수강한 집단에

비해 기업가정신이 더욱 높게 나타났다.



<그림 2> 창업교육 수강여부의 조절효과

또한 <그림 3>에서 보듯이, 진로불확실성의 상호작용의 효과는 학생들이 지각하는 진로불확실성의 수준과 관계없이 창업효능감이 높은 대학생들의 기업가정신이 전반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대학생들의 창업효능감이 높은 집단에서는 진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학생들의 기업가정신의 증가폭이 더욱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 진로불확실성의 조절효과

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예비창업자의 창업효능감, 진로불확실성, 창업교육 및 기업가정신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특히, 창업효능감과 기업가정신의 관계에서 창업교육과 진로불확실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충남 천안에 소재한 4년제 대학의 대학생 236명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창업자들의 높은 창업효능감은 기업가정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둘째, 예비창업자의 창업효능감과 기업가정신의 관계에서 창업교육의 상호작용 효과가 실증되었다. 창업교육을 수강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창업효능감 낮은 수준에서 일정 수준이 될 때까지 기업가정신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창업효능감이 높아질수록 창업교육을 수강하지 않은 집단의 기업가정신이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창업효능감과 기업가정신의 관계에서 진로불확실성의 상호작용 효과가 실증되었다.

진로불확실성을 낮게 지각하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창업효능감이 낮은 수준에서 일정 수준이 될 때까지 기업가정신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창업효능감이 높아질수록, 진로불확실성을 높게 지각하는 집단에서 오히려 기업가정신이 더욱 높게 나타났다.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창업자의 높은 창업효능감이 기업가정신을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의 인지적 능력(예: 효능감, 자율성, 복원력 등)이 기업가정신 등 창업행동을 강화한다는 선행연구(예: Rauch & Frese, 2007; Rutherford & Holt, 2007)와 맥을 같이 한다. 효능감이 대학생들의 진로선택이나 직업적 흥미, 힘든 일에 대한 인내력 등에 영향을 준다는 주장(Markham et al., 2002)처럼, 높은 창업효능감은 대학생들의 창업진로와 창업에 대한 도전정신을 자극하여 실제 창업행동으로 연계될 수 있다. 따라서 창업자의 성격이나 특질(traits)이 창업성공을 체계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창업효능감 등 인지적 능력의 개발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Gartner, 1988; Kasouf et al., 2015)과 같이 대학생들의 창업효능감을 제고하기 위한 창업교육의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Zhao et al.(2005)은 창업교육에서 창업효능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지만, 국내 창업교육은 이론 위주의 지식 전달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국내 창업교육의 방향은 성공적인 창업과정에 중요한 예비창업자들의 인지적 역량(예: 창업효능감, 복원력, 모험추구행동 등)을 강화하는 과정과 이론 위주의 실무과정을 경험이나 행동을 통한 학습방법(learning by doing or experience) 등으로 보다 실제적이고 통합적인 창업교육과정이 개발되어야 하겠다.

둘째, 예비창업자들의 창업효능감과 기업가정신의 관계에서 창업교육의 조절효과를 규명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예비창업자들의 기업가정신에 대한 상호작용 효과는 창업교육과 창업효능감의 수준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보였다. 먼저, 기업가정신에 대한 창업교육의 긍정적인 상호작용 효과는 창업효능감이 낮은 수준에서 중간정도의 수준이 될 때까지 예비창업자들의 기업가정신이 높게 유지되었다. 즉, 예비창업자들의 기업가정신은 창업교육을 수강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창업효능감이 중간정도의 수준까지는 더욱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창업효능감이 중간 수준을 넘어 높은 수준의 집단에서는 자신의 창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창업교육을 수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창업교육을 수강하지 않은 집단보다 낮은 수준의 기업가정신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Fayolle et al.(2006)의 주장과 유사한 결과라 할 수 있다. Fayolle과 동료들은 창업교육이 창업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대학생들이 기대하는 창업교육의 수준이나 목적(예: 창업인식 확산)에 따라 오히려 창업의도를 감소시키는 역효과를 보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창업효능감이 높은 예비창업자들은 실질적인 창업교육을 통해 성공적인 창업과정을 준비하고자 하나, 수강한 창업교육이 대학생 자신의 니즈(needs)에 부합되지 못하면, 오히려 창업교육에 대한 불만족이 증가되어 기업가정신에 역효과를 보인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창업교육은 창업과정에서 자신의 역량에 대한 개발이 필요한 예비창업자들에게 효과적인 학습기회를 제공하지만, 창업역량에 대한 믿음이 높은 예비창업자들에게는 창업교육의 수준이나 목적에 따라 오히려 역효과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예비창업자들의 기업가정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대학생들의 창업관련 인지적 능력에 대한 창업교육과 더불어 창업의 이해 수준과 니즈(needs)를 분석하여 예비창업자들에게 적합한 맞춤형 창업교육(예: 수준별, 전문영역별 창업교육)이나 경험에 기반 창업교육(experience-based learning, Gibb, 2002; Rae & Carswell, 2000; Sedlan-Konig, 2016)이 실제 및 시행되어야 창업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하겠다. 특히, 창업효능감이 낮은 집단에서도 창업교육의 효과가 강조되는 바, 창업지식과 실무를 학습할 경험위주의 창업교육과 더불어 예비창업자들의 인지적 역량(예: 창업효능감, 복원력, 위험추구행동 등)을 함양하기 위한 창업교육의 개발이 필요하다 하겠다. 또한 각 대학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창업교육과 더불어 중앙(전국)단위에서 예비창업자들의 창업역량 및 인지적 능력을 복합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창업전문교육기관의 설립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창업효능감과 기업가정신의 관계에서 진로불확실성의 조절효과를 규명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기업가정신에 대한 창업효능감의 긍정적인 효과는 예비창업자들의 진로불확실성의 지각정도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였다. 먼저, 진로불확실성이 낮은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창업효능감이 높은 수준을 제외하고는 예비창업자들의 기업가정신이 더욱 높게 나타났다. 즉, 창업효능감이 낮은 집단에서는 예비창업자들의 진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낮을 때, 기업가정신이 더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창업효능감이 매우 높은 수준의 집단에서는 오히려 높은 진로에 대한 불확실성을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기회로 인식하여 예비창업자들의 기업가정신이 더욱 강화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효능감이 높은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위협보다는 기회요인으로 접근한다는 Bandura(1997)의 주장과 맥을 같이한다. 또한 창업자들이 창업을 준비하는 것은 매우 높은 수준에 자기 확신(self-confidence)이 필요한 도전적인 일이기 때문에(Markman et al., 2005), 창업자들이 지각하는 불확실성 문제와 창업자들의 창업효능감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Wilson et al.(2007)의 주장을 실증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예비창업자들이 지각하는 불확실성이 창업의 장애요인이라는 DeNoble et al.(1999)의 주장처럼, 예비창업자들의 창업진로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하겠다. 창업하면 패가망신(敗家亡身)이 아니라 창업이 새로운 기회라는 인식 제고와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학계나 실무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연대보증 철폐, 실패한 창업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재기 지원프로그램 확대, 예비창업자들의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인 토탈 창업지원시스템 구축 등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횡단연구를 실시한 바, 추후에 종단연구를 통해 창업효능감이 기업가정신으로 정착 또는 연계되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보다 구체적인 시사점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결과, 창업효능감이 높은 학생들은 자신의 니즈에 부합하지 못한 교육에 대한 불신으로 오히려 기업가정신이 증가하지 못하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창업교육의 효과성 측정을 보다 구체화하여 창업교육의 목적, 내용, 수준 및 방법 등 창업교육의 차이가 주는 효과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셋째, 진로불확실성에 대한 명확한 측정도구가 개발되어 있지 못해, 금번 연구에서는 박희락(2009)의 측정도구를 활용하였다. 그러나 향후 연구에서는 진로스트레스의 하위 구성변인으로 진로불확실성이 아닌 보다 포괄적이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대학생들의 진로불확실성을 파악할 수 있는 측정도구의 개발 및 보완이 필요하다 하겠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대상이 충남의 천안지역의 대학에 한정되어 연구가 진행되어 창업효능감이나 진로불확실성, 창업교육, 전공별, 학년별 등에 대한 인식이 타 지역과 다른 특성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연구의 일반화가능성에는 한계점이 노정되어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수도권 또는 전국단위로 연구대상을 확대하여 연구의 일반화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REFERENCE

김미숙·김영국(2012). 관광관련 대학생들의 개인적 요인, 교육과 조직적 요인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외식경영연구*, 15(4), 61-84.

김성환·복경수·박재준(2015). 예비창업자의 자기결정성이 기업가정신과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10(5), 15-26.

남정만·김성환·방누수(2014). *기업가정신과 창업*, 서울: 북넷.

박재준·김성환(2017). 예비창업자의 진로불확실성과 진로교육이 기업가정신 및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12(1), 73-85.

박재환·최민정(2016). 대학생의 창업효능감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11(2), 9-19.

박희락(2009). *대학생의 부정적 완벽주의를 통한 진로태도성숙의 예측: 진로스트레스 및 스트레스의 대처전략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고려대 대학원.

안태욱·박재환(2018). 창업교육이 대학생의 진로에 미치는 효과성 연구, *벤처창업연구*, 13(2), 177-192.

유봉호(2013). 청년창업자의 심리특성과 내재적 동기가 창업성공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대한경영학회지*, 26(10), 2669-2690.

윤남수(2012). 잠재적 창업자의 창업동기 요인이 기업가정신 및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산업경제연구*, 25(2), 1537-1557.

이용희·홍광표·박수홍(2015). 국내 벤처기업의 창업성공에 관한 연구동향 분석, *벤처창업연구*, 10(6), 15-26.

임진혁·이장희(2017). 변혁적 리더십과 자기효능감이 정성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창업학회지*, 12(2), 278-303.

정승화(2008). *벤처창업론*, 서울: 박영사.

정연우·반성식(2008). 청소년 창업교육과 창업의지에 관한 연구, *한국창업학회지*, 3(1), 45-67.

조준화·김찬중(2015). 대학생의 기업가정신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

- 향, *인적자원개발연구*, 18(4), 53-75.
- 최종열·정해주(2008). 경영학교육이 기업가정신 함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인적자원관리연구*, 15(3), 213-230.
- 한성수·양동우(2017). 텍스트마이닝을 이용한 창업관련 연구 동향 분석, *벤처창업연구*, 12(5), 1-12.
- 한유진(2016). 기업가정신 및 창업 관련 국내 연구동향, *디지털융복합연구*, 14(12), 121-131.
- Ahn, T. U., & Park, J. W.(2018). The Effec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on the Career Path of University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3(2), 177-192.
- Aiken, L. S., & West, S. G.(1991). *Multiple regression: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s*, Newbury Park: Sage.
- Ajzen, I.(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2), 179-211.
- Bandura, A.(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NY; W. H. Freeman and Company.
- Bandura, A., Barbaranelli, C., Caprara, G., & Pastorelli, C.(2001). Self-efficacy beliefs as shapers of children's aspirations and career trajectories. *Child Development*, 72(1), 187-206.
- Barbosa, S., Gerhardt, M., & Kickul, J.(2007). The role of cognitive style and risk preference on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Leadership & Organizational studies*, 13(4), 86-104.
- Bechard, J., & Gregoire, D.(2005). Entrepreneurship education research revisited: The case of higher education. *Academy of Management Learning and Education*, 4(1), 22-43.
- Betz, N., & Hackett, G.(1981). The relationship of career-related self-efficacy expectations to perceived career options in college men and wome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8, 399-410.
- Birley, S., & Westhead, P.(2004). A taxonomy of business start-up reasons and their impact on firm growth and siz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9(1), 7-31.
- Boyd, N. G., & Vozikis, G. S.(1994). The influence of self-efficacy on the development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and action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8, 63-77.
- Brockner, J., & James, E. H.(2008). Toward an understanding of when executives see crisis as opportunity. *The Journal of Applied Behavioral Science*, 44(1), 94-115.
- Chen, C. C., Greene, P. G., & Crick, A.(1998). Does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Distinguish Entrepreneurs from Manager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3(4), 295-316.
- Cho, J. H., & Kim, C. J.(2015). The Effects of University Students' Entrepreneurship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Moderating Effects of Entrepreneurial Education and Entrepreneurial Participation. *Korean Journal of Resources Development*, 18(4), 53-75.
- Choi, J. Y., & Jeong, H. J.(2008). A Study On Effect Of Management Education To Entrepreneurship Improvement, *KAHRM*, 15(3), 213-230.
- Chung, S. H.(2008). *Business Venturing for wealth creation*, Seoul: Bakyoungsa.
- Cohen, J., & Cohen, P.(1983). *Applied multiple regression / correlation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Hillsdale, NJ; Erlbaum.
- Covin, J. G., & Miles, M. P.(1999), Corporate entrepreneurship and the pursuit of competitive advantage, *Entrepreneurship Theory & Practice*, 23(3), 47-64.
- Crant, J. M.(1996). The proactive personality scale as a predictor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34(3), 42-49.
- Culbertson, S. S., Smith, M. R., & Leiva, P. I.(2010). Enhancing Entrepreneurship: The Role of Goal Orientation and Self-efficacy,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9(2), 115-129.
- Daniels, L. M., Stewart, T. L., Stupnisky, R. H., Perry, R. P., & LoVerso, T.(2011). Relieving career anxiety and indecision: The role of undergraduate students' perceived control and faculty affiliations. *Social Psychology of Education*, 14, 409-426.
- Darmanto, S., & Yuliani, G.(2018). mediating role of entrepreneurial self efficacy in developing entrepreneurial behavior of entrepreneur students. *Academy of Entrepreneurship Journal*, 24(1), 1-14.
- Davidsson, P.(1995). *Determinants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Retrieved from <http://eprints.qut.edu.au/2076/>
- De Raaf, S., Dowie, M., & Vincent, C.(2009). Improving career decision making of young workers: Design of a randomized experiment, Available at: http://www.srdc.org/uploads/careermotion_design_rpt.pdf
- DeNoble, A., Jung, D., & Ehrlich, S.(1999).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The development of a measure and its relationship to entrepreneurship. In P. D. Reynolds, W. D. Bygrave, S. Manigart, C. M. Mason, G. D. Meyer, H. J. Sapienza & K. G. Shaver (Eds.), *Frontiers of entrepreneurship research* (73-87). Wellesley, MA; Babson College.
- Drucker, P.(1985), Purposeful Innovation and the Seven Sources for Innovative Opportunity.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30-36.
- Eccles, J.(1994). Understanding women's educational and occupational choice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18, 585-609.
- Ertuna, Z. I. & Gurel, E.(2011). The moderating role of higher education on entrepreneurship. *Education+Training*, 53(5), 387-402.
- Fayolle, A., Gailly, B., & Lassas-Clerc, N.(2006). Effect and counter-effec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d social context on Student's intentions. *Estudios De Economía Aplicada*, 24(2), 509-523.
- Gartner, W. B.(1985). A Conceptual framework for describing the phenomenon of new venture creation,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0(4), 696-706.
- Gartner, W. B.(1988). Who is an entrepreneur? Is the wrong question. *American Journal of Small Business*, 12(4), 11-33.
- Gibb, A. A.(2002). In pursuit of a new enterprise and entrepreneurship paradigm for learning: creative

- destruction, new values, new ways of doing things and new combinations of knowledge. *International Journal of Management Reviews*, 4(3), 233-269.
- Hackett, G. & Betz, N.(1981). A self-efficacy approach to the career development of wome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8, 326-339.
- Han, S. S., & Yang, D . W.(2017). Analysis of Research Trends Related to Start-Up Using Text Mining.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2(5), 1-12.
- Han, Y. J.(2016). Research Trend of Entrepreneurship in Korea.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4(12), 121-131.
- Hisrich, R., Peters, M., & Shepherd, D.(2013). *Entrepreneurship, ninth edition*, NY; McGraw Hill.
- Hornsby, J. M., Naffziger, D. W., Kuratko, D. F., & Montagno, R. V.(1993). An interactive model of the corporate entrepreneurship proces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7(2), 29-37.
- Jackson, S. E. & Dutton, J. E.(1988). Discerning threats and opportunitie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33(3), 370-387.
- Jeong, Y. W., & Bahn, S. S.(2008). A Study on the Teenager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s, *The Korea Entrepreneurship Society*, 3(1), 45-67.
- Jiang, H., Xiong, W., & Cao, Y.(2017). Research on the mechanism of entrepreneurial education quality,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in social sciences, engineering and science education. *Eurasia Journal of Mathematics, Science & Technology Education*, 13(7), 3709-3721.
- Kasouf, C. J., Morrish, S. C., & Miles, M. P.(2015). The moderating role of explanatory style between experience and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and Management Journal*, 11(1), 1-17.
- Kelly, K. R., & Lee, W.(2002). Mapping the domain of career decision problems, *Journal of Career Behavior*, 61(2), 302-326.
- Kim, M. S., & Kim, Y. G.(2012). Effects of Individual Trait, Educational, Organizational Factors on Entrepreneurial Intentions in Tourism College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s of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Journal of Food service Management Society of Korea*, 15(4), 61-84.
- Kim, S. H., Bok, K. S., & Park, J. C.(2015). Relationship Among Self-Determination, Entrepreneurship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University Students in Korea.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0(5), 15-26.
- Krueger, N. F. & Dickson, P. R.(1994). How believing in ourselves increases risk taking: perceived self-efficacy and opportunity recognition. *Decision Sciences*, 25(3), 385-400.
- Krueger, N. F., Reilly, M. D., & Carsrud, A. L.(2000). Competing Models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5(5-6), 411-432.
- Kuratko, D. F., Montagno, R. V., & Hornsby, J. S.(1990). Developing an Entrepreneurial Assessment Instrument for Effective Corporate Entrepreneurial Environment.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11(5), 49-58.
- Lee, Y. H., Hong, K. P., & Park, S. H. (2015). Analysis of Research Trends in the Successful Establishment of Venture Companie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0(6), 15-26.
- Lim, J. H., & Lee, J. H.(2017). The Relationship between Transformational Leadership and Self-Efficacy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Focus on the Mediating Effects of Entrepreneurship, *The Korea Entrepreneurship Society*, 12(2), 278-303.
- Lopez, F. G., & Ann-Yi, S.(2006). Predictors of career indecision in three racial/ethnic groups of college women,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33(1), 29-46.
- Markham, G., Balkin, D., & Baron, R.(2002). Inventors and new venture formation: The effects of general self-efficacy and regretful thinking.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27(2) 149-165.
- Markman, G. D., Baron, R. A., & Balkin, D.(2005). Are perseverance and self-efficacy costless? Assessing entrepreneurs' regretful thinking.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26(1), 1-19.
- Mcgee, J. E., Peterson, M., Stephen L. Mueller, S. L., & Sequeira, J. M.(2009).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Refining the Measure.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33(4), 965-988.
- Miller, D.(1983). The correlates of entrepreneurship in three types of firms. *Management Science*, 29(7), 770-791.
- Nam, J. M., Kim, S. H., & Bang, N. S.(2014). *Entrepreneurship & Start-up*, Seoul: Booknet.
- Palmer, M.(1971). The application of psychological testing to entrepreneurial potential. *California Management Review*, 13(3), 32-38.
- Park, H. R.(2009). *Predicting career attitude maturity of college students from maladaptive perfectionism via career stress and use of coping strategies*.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 Park, J. C., & Kim, S. H.(2017). The Effect of Career Uncertainty and Career Education on Entrepreneurship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Potential Entrepreneur in Korea: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Determination.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2(1), 73-85.
- Park, J. H., & Choi, M. J.(2016). The Impact of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on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University Students: The Moderating Effect of Regulatory Focu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1(2), 9-19.
- Podsakoff, P. M., & Organ, D. W.(1986). Self-reports in organizational research: Problems and prospects. *Journal of Management*, 12, 531-544.
- Polyhart, R. E., & Moliterno, T. P.(2011). Emergence of the Human Capital Resource: a Multilevel Model.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36(1), 127-150.
- Rae, D., & Carswell, M.(2000). Using a life-story approach in researching entrepreneurial learning: The development

- of a conceptual model and its implications in the design of learning experiences. *Education and Training*, 42(4/5), 220-228.
- Rauch, A., & Frese, M.(2007). Let's Put the Person Back into Entrepreneurship Research: A Meta-analysi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Business Owners' Personality Traits, Business Creation, and Success. *European Journal of Work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16(4), 353-385.
- Rutherford, M. W., & Holt, D. T.(2007). Corporate entrepreneurship: An empirical look at the innovativeness dimension and its antecedents. *Journal of Organizational Change Management*, 20(3), 429-446.
- Schumpeter, J. A.(1934). *The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Sedlan-Konig, L.(2016). Integrating entrepreneur self-efficacy into education at universities. *Ekonomski Vjesnik/Econviews: Review of Contemporary Business, Entrepreneurship and Economic Issues*, 29(2), 311-321.
- Shane, S., & Venkataraman, S.(2000). The promise of entrepreneurship as a field of research.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5(1), 217-226.
- Solesvik, M., Westhead, P., & Matlay, H.(2014). Cultural factors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The role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Education+Training*, 56(8/9), 680-696.
- Stevenson, H. H.(1983). *A perspective on entrepreneurship*. Harvard Business School Working Paper 9-384-131.
- Tien, H. S., Lin, C., & Chen, S.(2005). A grounded analysis of career uncertainty perceived by college students in Taiwan,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54(2), 162-174.
- Timmons, J.(1994). *New Venture Creation: Entrepreneurship for the 21st Century*, 4th eds, Irwin/McGraw-Hill, Boston, MA.
- Wanberg, C. R., & Banas, J. T.(2000), Predictors and outcomes of openness to changes in a reorganizing workplac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5, 132-42.
- Wang, C., Wong, P., & Lu, Q.(2002). *Tertiary education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s*. in P. Phan (Ed.). Technological entrepreneurship, Information Age Publishing, Greenwich, CT.
- Wilson, F., Kickul, J., & Marlino, D.(2007). Gender,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nd entrepreneurial career intentions: Implications for entrepreneurship Education1.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31(3), 387-406.
- Wood, R., & Bandura, A.(1989). Social Cognitive Theory of Organizational Management.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4(3), 361-384.
- Yoo, B. H.(2013). The effect of entrepreneurs'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nd intrinsic motivation on the possibility of start-up success. *Korean Journal of Business Administration*, 26(10), 2669-2690.
- Yoon, N. S.(2012). The Effect of Potential Entrepreneurial Motivations on Entrepreneurship and Commitment to Starts-up: Mediating Role of Entrepreneurship,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and Business*, 25(2), 1537-1557.
- Zahra S. A.(1991), Predictors and financial outcomes of corporate entrepreneurship: an explorative study,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6(4), 259-285.
- Zbierowski, P.(2015). Positive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entrepreneurship: Theore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ositive Management*, 6(3), 16-28.
- Zhao, H., Seibert, S. E. & Hills, G. E.(2005). The mediating role of self-efficacy in the development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0(6), 1265.
- Ziyae, B., Mobaraki, M. H., & Saediyoun, M.(2015). The effect of psychological capital on innovation in information technology. *Journal of Global Entrepreneurship Research*, 5(1), 1-8.

The Effects of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on Entrepreneurship of University Students: Moderating Effects of Entrepreneurial Education and Career Uncertainty

JaeChun Park*

JuSeob Kim**

Abstract

Recently, domestic universities have emphasized career path to start-up through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ESE) and entrepreneurship.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ESE on entrepreneurship of university students. Also we examine the moderating effects of entrepreneurial education and career uncertainty between ESE and entrepreneurship.

Research sample consisted of 236 university students in Cheonan city.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is as follows: First, ESE showed a positive effects on entrepreneurship. Second, the moderating effect of entrepreneurial education was significan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SE and entrepreneurship. In other words, university students with a higher entrepreneurial education showed higher entrepreneurship when ESE was lower. But students with a lower entrepreneurial education showed higher entrepreneurship when ESE was higher. Finally, the interaction effects of career uncertainty was confirmed in relationship between ESE and entrepreneurship. In other words, university students with a higher career uncertainty showed higher entrepreneurship when ESE was higher. But students with a lower career uncertainty showed higher entrepreneurship when ESE was lower.

In order to improve the entrepreneurship of the pre-founders,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behavior control of university students by enhancing the ESE. Also, the improvement of entrepreneurship of pre-founders should strengthen the ESE of university students, and should complement systematic and effective entrepreneurship education. In particular, we should provide the stability for career decision by eliminating uncertainty about the career path of university students.

KeyWords: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Entrepreneurship, Entrepreneurship Education, Career Uncertainty

* First Author, Associate Professor, Dankook University, innosapark@dankook.ac.kr

**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Dankook University, jskim1088@dankook.ac.kr